

## 너에게 ..... 정호승

가을비 오는 날  
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었다  
너의 빈손을 잡고  
가을비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 
나는 한 송이  
너의 들국화를 피우고 싶었다.

오직 살아야 한다고  
바람 부는 곳으로 쓰러져야  
쓰러지지 않는다고  
차가운 담벼락에 기대서서  
홀로 울던 너의 흰 그림자

낙엽은 썩어서 너에게로 가고  
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데  
너는 지금 어느 곳  
어느 사막 위를 걷고 있는가

나는 오늘도  
바람 부는 들녘에 서서  
사라지지 않는  
너의 지평선이 되고 싶었다  
사막 위에 피어난 들꽃이 되어  
나는 너의 천국이 되고 싶었다